

귀 국 보 고 서

| | |
|------|----------------------|
| 파견대학 | 일리노이 공과대학 |
| 파견기간 | 18.08.15. ~ 18.1.05. |
| 프로그램 | 학기제 |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SEVIS납부, DS-160 신청, 잔고증명서

나. 필요 물품

- 방한용품
- 110V 변압기
- 노트북, USB 등 전자기기
- 듣는 교과목 관련 한국어 서적
- 국제학생증, 국제 체크카드(장기체류자의 경우 미국에서 만들기)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언어 : 영어
- 문화 : 시카고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으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일리노이 공대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며 인도인과 중국인이 특히 많습니다. 건축의 도시이기에 건물들이 화려하며 야경이 유명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 시카고는 미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이며, 미국의 큰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기에 본교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IT관련 전공과목을 들어야하는데 본교는 IT가 발달된 학교이기에 다양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 출국 전, 서울사무소에서 셔틀을 예약하라는 안내가 왔고 인터넷으로 셔틀을 예약하여 공항에서 픽업서비스를 받아 학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방학에 실시되고 경영보다 IT가 훨씬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오티 기간 일주일 동안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시험

이 없고 모두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수업도 있고, 쪽지시험과 중간기말고사를 모두 보는 수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본인은 IT전공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 위주의 시험이 많았고 모든 과목에서 매주 homework가 주어졌습니다. 두 개의 수업은 blackboard를 통해 현장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업로드 해놓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어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내용은 대부분 만족스러웠으며 얻어가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본인은 3개의 기숙사 중 ssv기숙사에 거주하였으며, 2명이 하나의 방을 쓰고 4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층마다 세탁실과 주방이 있으며 1층에는 24시간 RA(Resident assistant)가 있었습니다. 강의동과 식당과 매우 가깝고 안전은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라운지가 있고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msv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나-5. 교내·외 활동

교내 활동은 기숙사 파티나 학교파티가 있으면 참석하였고 보통 1~2주에 한 번씩 파티에 갔습니다. IIT의 대표적인 행사는 크루즈파티이며 배 한척을 빌려서 교내 학생들 다같이 노는 것입니다. 또한 한인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교외활동으로는 'meet-up'이라는 것이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현지인들과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만나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매주 토요일 점심에 같이 만나 밥을 먹으며 진행되었으며 친구도 사귀고 영어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활동입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교내식당은 뷔페식이며 상당히 높은 퀄리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50끼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였으며 밤에는 지하철이 위험하여 우버를 이용하였습니다. 학교생활을 할 때, 조별과제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파티에서 만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어울리며 영어를 많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건네면 반드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 미국 서부(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LA, 샌디에고)를 열흘 동안 다녀왔고, 3박4일로 멕시코 칸쿤을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학교를 쉬는 날이 꽤있었고, 월이나 금을 공강으로 만들어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를 못가본 것이 조금 아쉬웠고, 멕시코는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되었을 만큼 좋았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초반에 조급함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느샌가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나와 마음 맞는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며 알아가다보면 영어도 자연스레 늘 것입니다. 자신이 유학생생활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확실히 정해두고 포커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영어, 여행, 공부 등을 다 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후회 없는 유학생생활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이니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